

컴퓨터라는 預言者

요즘 앨빈 토플러가 저술한 '권력이동'이란 책이 일반인들 사이에 상당히 널리 읽혀지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정보화사회가 진전되면서 권력이동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3대 권력중의 하나인 富가 커다란 권력으로 성장함에 따라 부가가치 산업인 소프트웨어산업의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가 사회적 분업차원에서 갖는 가치는 기업이 정보화에 대한 투자비용을 높이고 정보처리의 방법을 더욱 고도화 대규모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컴퓨터이용자들은 소프트웨어의 가치 증대를 위해서 집중형의 정보처리방법을 네트워크를 이용한 분산처리형태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이용자의 전산비용 부담도 더욱 가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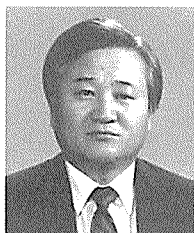
이러한 점 때문에 최근들어 소프트웨어가치의 효율적인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질적 향상과 양적 성장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가치에 대한 중요성과 관련, 정보산업계의 어느 유명인사의 말을 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을 뿐아니라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을 꼬집은 명언이므로 인용하고자 한다.

'전문기술자들은 최고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과 자신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흠이 없는 '최상의 제

黃七鳳

효성데이터시스템(주) 대표이사



품을 개발하는데 연연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을 활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제품보다는 흥미있는 제품의 개발을 원하고 있다.

여러가지 제품중 컴퓨터 사용자가 가장 즐겨 찾는 제품은 바로 소프트웨어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활용될 때 컴퓨터는 인간의 미래를 예견하는 과학적인 예언자가 될게 분명하다. 컴퓨터의 잠재력과 함께 지식을 대표하는 소프트웨어가 부를 대표하는 '권력의 큰 힘'으로 작용할 때 사회적인 목표가 희망적인 현실로 다가설 것이다'

앞의 지적처럼 고도정보화시대가 정착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치인식이 빠르게 형성될수록 인류의 꿈인 컴퓨토피아 건설이 더빨리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